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희
편집인	김영수
주필	김영수
외대학보	(02)507-7128, 961-4151
외대학보	(02)505-7048, 961-4152
130-791 서울 서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란면 왕선리 589	
인쇄인	김영수

554호 1990년 11월20일(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주인)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2453호

재단, 학사운영불간섭합의

학교측, 용인총학 40개항 학자제안에 20개항 답변서 전달 차기 총장선임개선책, 교수협의회에서 연구·검토할 것등 내용으로

「재단은 학사운영에 불간섭 원칙을 준수한다.는 제1항의 내용에 20개 조항의 답변서가 용인 캠퍼스 총학평의회로 전달되었다. (관련기사 9면)

이제 10월12일(금), 용인 캠퍼스 총학평의회가 이장희 총장 앞으로 제출한 「학사운영을 위한 40개항 제안서」에 대한 답변으로, 5차례의 학자 회담과 그동안 각 정당급 및 주요 보직교수들의 결정된 논의를 전경관(화학)교수와 평의회 11월13일(화) 전달된 것이다.

이는 지난 87년 학원(학원민주화) 투쟁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100%)로 되었기 때문에, 이후 진행된 학사사업이 다소 단절적이고, 근거제정의 측면이 미약했다는 비례, 이번의 경우는 기존의 학사사업과는 달리 학교측의 답변이 공식 명

문화 되어 이후의 진행이 더욱 용이로 되고, 추후 논의의 근거와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상의 학교측의 20개항 답변서 내용은 제1항 「재단은 교육제정의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학사운영에는 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조항은 교육의 원본적인 명분상, 평의회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재단의 학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재단의 학사운영이 합법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통원재단측의 「학사운영 개선 제의」와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재단」 학사운영에 불간섭 하겠다는 내용이 명문화 되었다고 하나, 학교측이 답변서에 명시한 「학사운영」의 범위가 각 구성원에게 아직 설

정이 되어지지 않았으므로, 이후 논란의 여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학사운영」이란 총장선출 등의 모든 학교, 학생, 직원 등 간에 아직 인지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주요내용은 △제2항 재단의 교수진 전환방안의 적합한 시기공개, △제4항 차기 총장선임방안에 있어서 교수·직원·학생·의사방역의 개선방안 공동노력, △제5항 대학원 진학위의 제정해 제시가능, 학과에 대한 학사운영의 준비 개척, △제9항 교과과정 개편의 92년 1학기 시행가능, △제10항 교수 평가제의 검토, △제11항 서양학대학의 동구어 계열 분리의 적절성 검토할 수 의견서인 마면, △제17항 교수

사설

정부의 추수대동제 원천봉쇄를 보며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제대학교에서는 '90 전국농민 추수대동제'가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서도 강행되었다.

이번 추수대동제는 당초 집회신고가 필요치 않다고 하였던 경찰이 말하는 달리 추수대동제가 열리기 하루전인 16일 원천봉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민들의 대대적 출입이 차단되었다. 결국 경찰의 원천봉쇄로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크지는 못하였지만 상상상으로 봉쇄망을 뚫고 들어온 농민들에 의해 대동제에는 무리없이 치루어졌다.

이번 대동제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자기고정의 특산물과 1년간 피땀을 흘린 농산물을 가지고 상경하러온 농민들은 경찰에 의해 출몰지에서부터 저지를 받거나, 저지과정에서 일부농민이 머리를 다쳐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 상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동제에 들어갈 수 가 없어서 실패는 농민들을 그대로 쫓아내었다.

정부의 「농사진흥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사는 4천만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동력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사사업이 대중성을 담보해 내고, 뚜렷한 방향성의 설정과 목표의 정립으로 이후, 대중적 투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하는 점도 요구되고 있다.

〈용인 총학평의회 제안에 대한 학교측 답변서 전문〉

1. 재단은 교육제정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학사운영에는 불간섭 원칙을 준수한다.
2. 교육제정의 보다 단절적이고 폭넓은 확보를 위해, 재단의 수의 사업은 교수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정된 방안을 적합한 시기에 공개한다.
3. 1990년 9월말에 이미 회신한 바 같이 현 총장의 임기는 취임일로 부터 4년이다.
4. 차기 총장의 선임 방법에 관한 개선책을 교수협의회에서 연구하고 있다. 교수, 교직원, 학생의 의사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은 각 구성원들의 시간이 마련된 후에 상호 공동노력으로 확정한다.
5. 대학발전추진위원회(가칭)는 교수협의회와 각 구성원의 대표가들이 협의하여(예를 들어 교학평의회) 합리적인 모형을 학교 당국에 제시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학교는 대학발전추진위원회(가칭)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학의 구성원 뿐 아니라 동문,학부모 및 사회자민사들로부터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6. 발전계획은 기획 조정처에서 대학내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는데, 이는 장기·중기·단기로 구분되어 있다. 중기계획은 5년, 단기계획은 1년 단위로 마련된다. 특히 중기계획의 경우는 발전전략의 변화에 부응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다.
7. 학교의 예산 결산을 심의 조정하여 총장에게 건의하는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는 이미 구성하였다.
8. 각 학과의 교과과정 개편을 교육제정에 관한 사항은 매년 또는 매학기 단위와 학과장이 소속 학과의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에 건의, 확정한다.
9. 교과과정 개편은 교과과정 상임위원회와 용인캠퍼스 교육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기로 약속하였다. (1989년 10월26일자 학교발전추진 위원회 제1차. 학과 1990년 1월15일자 결의사항에 대한 회신 2차. 학을

- 참조.)
- 현 시점(1990학년도 2학기)에서 개편안이 마련되도록 91학년도 1학기에는 시행할 수 있고 92학년도 1학기에는 시행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10. 교수 평가제는 교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될 시점에서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
11. 서양학대학의 단과대학에 관한 것은 소속대학의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시기(소속학과들의 졸업생 배출후)에 검토하기로 하였다. 서양학대학의 파견한 일부의 분신과 동구어 계열의 독자적인 학문발전을 위해 서양학대학과 소속교수의 의견을 수렴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다.
12. 사회과학대학의 명칭 변경은 소속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과학대학이 건의할 때 학교는 이를 수용한다.
13. 도서관 준공에 따른 건물내의 공간 제재지는 도서관 준공과 더불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4. 분수대는 선례에 따라 추진할 수 있으며, 버스정류장의 이전 및 후생복지관의 건립 문제는 재단변경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다룰 것이다.
15. 성당 및 분당의 지하할 공사와 도로확장 및 도로 신설 계획에 있어서도 교통편리를 마련한다.
16. 신 강의를 건설은 92학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약속되었다. 91학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공동노력한다.
17. 우수 학생을 위한 자원은 법과 학과의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18. 생활기구의 공사내용에 관한 건의는 학자보수의 차원에서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 학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19. 학원 자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특별기구는 학생 자치활동 범위에서 지원한다.
20. 현재 공식적인 명칭은 「용인캠퍼스」이다. 학교 내의 여론을 수렴하여 학교발전이 이익이 되는 공식명이 있다면 변경할 수 있다.



지난 11월13일(화), 용인캠퍼스 총학평의회 「학원민주화」를 위한 40개항 제안서,에 대한 학교측의 「20개항 답변서」, 제출과 관련하여 학원민주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학자특위)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스스로 자기 몫을 찾는 자발적 참여와 대중적 확산속에 학자사업이 진행되어야...」

〈용인, 학자특위 인권복지위원회 김택훈을 만나〉

할 수 있었습니까. 지난 날 학자회담을 진행할 때와는 장소가 여러번 바뀌고, 중간과제를 치루면 중언이 약속 시간을 지킴으로 시일이 제때로 진행되지 못하고, 회담장소로 뛰어오르던 일 등이 생각납니다. 지난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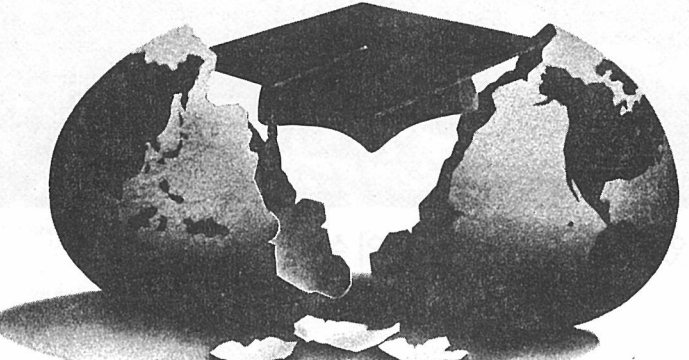
미래의 주역을 양성하는 교육산실

—균형있는 학문발전과 교육의 선진화

세계를 호응하는 知性과 미래지향적 국제인을 양성하는 외대는 21세기를 대비한 학문의 타진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상과 넓은 포부로써 학문의 본질을 탐구하는 外人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대는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문의 실용화에 앞장서 나아가며 제반 학문의 선진화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동구어계열과 자연과학 분야에도 학문의 영역을 확대하는 외대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인재를 산출하는 학문의 탑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분연히 떨치고 오늘날 외대는 꺾짐을 깨고 나옴으로써 노력으로 힘차게 펼쳐가 미래로 나아 갑니다.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재검토 필요한 본교 제작 교재

양정 이불 소슬히허지 일뿐
 이불 두개 머럼하 새로문 외
 인으로 데우장 신들삼문은
 인 인애상하의 존재가 전혀 없
 그마로와 완비 12자면의 교
 조로 가버문 마음으로 학문
 로일할 수 있었으니 한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가
 네, 이 까지 지어하는 생각을
 수리하 게한다. 어떤 면에서
 것은 일에 인연하지 않으면
 데비할까도그 할 수 있겠
 인하면 일들이 때에이 적응
 는 것인만 아남을 무런 도
 시 알 수 있다. 모미에서
 하라고 싶은 건, 이왕 지나
 비키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은 학기를 위해서 지금 당
 1, 2, 3, 4학년 교재 몇몇
 에서 출판되는 서적만을 내
 시, 인쇄되어 오기를 반복하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 검토
 보는 시간을 가졌으니 한다.

《독후·이람은 12자면》

지주·민주·통일을 향해 민
중에 대한 신심을 가진 분이
됩니다. —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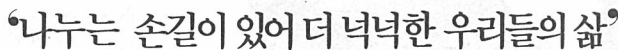
모든 일을 말보다 행동으
로 실천하는, 그래서 하우들
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장이 좋습니다.

—A89—

귀가 커서 우리들의 소리
를 잘 들을 수 있고 말이 커서
1년동안 여기저기를 지치
지 않고 다닐 수 있고요 같이
커서 우리들의 요구를 큰 소
리로 이야기 해 줄 사람이

민의 눈으로 보면 무능한 나랏집도 있고 무자비한 총독주도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함평의 고구마나 전 경전대 의곡 소 이아기를 할 것도 없다. 자기가 양파를 거둔 배를 찔러 주는 농민을 보라. 정부의 약속을 믿을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의 민들이다. 그들의 요구들도 양곡의 전량수출을 보강하고 미인과 요소의 가격저지수출을 실시하고 영농자금을 싸게 공급하고 국가의 실업조사 빛진 농민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빈민상태의 농촌을 소도시화가 열망이 새겨 어디서든 개발되어 있지 않은 이 땅에서 한국의 농촌이 어떻게 이면이 되고 싶어 할까 불일치 아닌가?

화염병:
 ▲사회:
 으로는 자
 사람이 따
 든 문제의
 ... 압론
 해결할 것
 친다면 해



다시 깨워뵙는 몸을 기억하는 우리 부모들의 삶—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의 삶이 들어있는 뿌리이며,
더로 아끼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인깨워주는 끝없는 사랑의 티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가나난 겨울을 준비하는 자리에 서서,
이 땅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생각하며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

학자합의 성실히 지켜져야 한다.

진보적 학문수용및
전임교수 확보 절실

3409

핵폐기장 결사반대한 안면도 주민투쟁기



평온한듯 보이는 안면도는 여전히 「불씨」를 남겨 놓은채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 시사저널)

마을 청년들이 중심이 된 안면도 시수결사대원들이 경유와 타이어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

이른들이 보여주는 지역감정도, 당국에서 조작하려 했던 외부세력의 개입도 엿보이지 않는 안면고등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절박한 고향사랑의 소망들이다.

8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핵 폐기를 처리를 위한 시설 후보지 선정이 이루어졌으나 각 지역주민들의 촉망조나 거부로 중단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지난 3월 정부는 충청도와 합의하여 「서해과학연구단지」 형태로 일면도 입지를 겨냥하는 위장작업을 벌였다. 민간인 주민

경상도는 백이 있고, 전라도는 충청도 못지않고,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태어난다는 쪽이 아닌는거니, 라는 홍보물에서도 인하는 「지역적 소외감」이 사태의 시발에 촉진제가 되기도 하겠지. 또한 백악산이 환경에 노출된 경우 폐기시설들 다량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알발성, 유전적 이상등의 치명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선전이 수면들의 분노를 더욱 격화시켰다. 한편 각 단체들이 모여 「공중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국 핵발전 추방본부」가 연대의 힘이 되어 있었고, 주연수동맹은 분명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으로 으면서까지

없이 버릴 수 없다는 주민 스스로의 투쟁의지와 그간 축적된 투쟁력량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간에 범람한 언론보도는 언론도 사태를 지역운동의 한 계로 극한시켰다. 즉, 지역운동차원으로 한정되었으면서 해법 찾기 문제로 중요도와 그 해결만을 시시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치중함으로써 주민들의 투쟁수위와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이 제시되지 못했다.

이런면 핵발전소 건설예정, 안된다 주민들은 독점재벌에 의한 수탈과 당국정책의 부실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는 쉽지가 의원외에 왔던 것이다. "그놈의 핵쓰레기가 모든 것은 축출도 안한다. 그러면 핵처리할 사람 많지요. 다이나미트로 연속코를 파피 하겠다"고들 말했소. 그것은 큰 축출도 안됩니다" 주민들은 더이상그 수탈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위의 양상에 따라 결판인 타결점이 자주 변하는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며 더 이상의 기간 또한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평민당도 민자당도
모두 질렸습니다. 어떤 놈이
정권을 잡든 이 땅에 핵폐기를
이 안오기만 하면 됩니다. 말
로만 백지화가 아니라 문서로

활사하고 해탈한 말입니다.나라라는 주된 양친육부의 원천에서도, 이 문제는 기필코 타협할 수 있음을 느낀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전과 내의 상교합침은 한국의 화를 불러 '마루배'에 휩싸이고 있어 잊지 않는가 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인의 투쟁력이 강건 존재해 있을 때 비로소 추진된 해탈기를 시험하기 보다 합법적으로 자연 리듬까지 자리잡아 나갈지도 모를을 주시해야 한다.

인연도 사태는 해탈기를 문제화 촉발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계기였으며, 대립되는 분자적발반응의 추스와 해탈기들의

과학적 처리문제를 여론화 시켰다. 이번 사태는 핵폐기물
대한 당국의 반민중적 처리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에 수탈받고 착취당했던 농
민의 분노의 수준을 보여주

최근들어 경제적 탄압에 준거해서 이토록 강화된 투쟁의 방향을 가지고 정치적 사안에 대응해 나간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비추어 볼때 안면도 사태 하나, 안면도 항쟁은 현시국 민중들의 위상을 다시금 각인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 동부지구상설공동기자단:본보 박현숙기자〉

[illegible]

들과 일인반구 상의도 없이 안면도를 95년 12월말까지 짓기로 한 것. 저중·저하 해매기를 영구치보장의 건설장소로 결정하고 원지에서 1백~1백50만평의 부지매입을 거의 끝낸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들은 해매기로서치설의 존재여부도 중요했지만 자신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밀실행정과 하향식 행정처리에 대한 분노는 대단했다. 더우기

『당국
으로 농
거라도
에 고하
가쳐와
사람들
하겠다
이 불
본통터
16일
본교
학생회
『농민·
학생 연
대사업
실에는
연상
한 모습
이 벌어

의 주관
산을 직
하는판
특산물
사술
세 그것
2층 총
사무
는 차량

있어 비싼단. 진도도
육과 「진도대교」가
봉쇄되어 차로 3분
물살계기로 이문남
나뭇목으로 전진한다
올에 도착했으나 철
회대로 가지 못하고
집을 찾았다.

어떻게든 행사에
달라 뒤편에 있었지만
지 봉쇄되어 특산물

해남을 있는 연
찰에 의해 원천
면 전설 거를
우수영을 3시간
18시간만에『저
점점때문에 경
일단 고려대에
안여하려고 몸만
이제는 고려대에
가져 배를 수
란 말이여.
이 우투파에
농민 속시경
고 말여.
진도군
(37)씨는
후 있다고
또 작게
향객들에게
있는 초대
있던 것이

행사장에 온 서울시민들
라운드때문에 멍든 우리
이해해주면 더 좋은것이
내면 농민지회장 전기성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알한다.
도에 내려온 서울거주 귀
이런 행사를 같이 즐길수
을 8백만원어치 팔아 농

『수십만원을 변통해서 준비한 가도 리·낙지·유자인데 이제는 다 썩어버렸을거여』

격정이 분노로 변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서울만 안가면 마진율을 10% 떨어뜨려 사주겠다'고 군청·경찰서에서 통사정도 하더구만, 그러나 우리가 장사할라고 온건가. 이젠 추수대동지

『수십만원을 변통해서 준비한 가도 리·낙지·유자인데 이제는 다 썩어버렸을거여』

격정이 분노로 변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서울만 안가면 마진율을 10% 떨어뜨려 사주겠다'고 군청·경찰서에서 통사정도 하더구만, 그러나 우리가 장사할라고 온건가. 이젠 추수대동지

없었다. 애기다.
행사가 열리는 사흘 내내 청량리·회기·월경역동에 유례없는 병력을 투입해 경찰은 "검문경찰 대동세"가 되어 어버린 농민대동세를 보는 한 농민의 말이다.
「농어민 후계자대회 할때는 중추원으로 내몰려 소·돼지 취급당하더니 이번에는 필자가 없는 사기꾼이 되어 버렸네 그려」 (〈최원일 기자〉)

신한은행은 1982년 7월 7일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일반사중은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은행으로서 젊은이의 꿈과 야망을 추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계금융대행으로의 도약을 단행하는 제1 신한은행이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금년에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6회 전국 대학생 논문경진대회를 실시합니다.

높은 학구열과 리더십의욕에 불타는 전국대학생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설립인 : 1982. 7.
- 은행장 : 김 재 훈
- 자본금 : 5,160 억원

- ## 공모요강
- ### 1. 자격
- ① 응모자격 (1991. 5. 31) 현재 한국의 대외로 밀려나온 재일한국인
- ### 2. 공모내용
- 대한제국에 대한 논제 중 택일
- 1) 한문(漢文) 經濟論議(經濟論議)에 어떤 글 것인가?
 - 2) 후구(後句)와 대외(對外) 韓國經濟
 - 3) 精進化時代의 企業經營戰略
 - 4) 北方外支와 經濟協力의 課題
- ### 3. 응모기간
- ① 1991. 5. 31 (금) (후송식 달말과 소금치 문서가 유출)
- ### 4. 당선료
- ① 1991. 6. 28 (금)
 - 달말식 개편 통일 및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에 공고
- ### 5. 상금
- | | | |
|--------|--------|--------|
| ① 최우수작 | 1:1위 내 | 300 만원 |
| ② 우수작 | 2:2위 내 | 100 만원 |
| ③ 기 | 3:3위 내 | 50 만원 |
| ④ 입 | 4:4위 내 | 20 만원 |

- 총 수 신 : 4조1,662억
- 영업점망 : 국내 86개소

- 6. 응용예**
- 논문배치 : 200 사 원고치 70~80매 내외(7~8매 선도의 20배부 첨부)
 - 재고 치 : 달형 본정 기호조자부(사출) [면치 중구 대영2(가120) 및 자명초체 검토]
- 7. 특 전**
- 허우주 및 우우와 입상자는 달형 입형자원치 필기 기구내부 내측 부에, (단, 달형 재현 호용요건을 수직내로 재어 함함)
- 8. 기 타**
- 호호자 재출시 언더처를 열거하고 본인 재출중명치 1호를 첨부함
 - 감두인 논문은 일직면반차 없음.
 - 화하표인 인쇄된 원고는 사출되는 사출물 및
 - 기타 사출한 달형은 달형 본정 기호조자부 본인이

- ★★★**자유**★★★
學校法人
新進
개강 : 매
수시접수 (야간)
永登浦 學院 영등포
 경인고4
西 部 學院 은평구
 신전동

이름시다
성실한 교육
마스터에 의한 사형각 교육
주 운영
장인단체 특별유대

- 신속국 특별전형
자유선생원**
신속국 시니어교원수
시니어 원비★★★

新進學園

동차원

주요요일
월요일도 겸수합)

원비도점수합)

출발도점수

합

(356) 2341-3

**VIHO HACHIMATU
TOEFL PREPARATION**

요코모토학원 1) 강의 등재 및 강사로
2) 영어 및 학업지도
3) 교양영어 및 특수
4) 해외어학모교로

목 적 1) 수료증 수여
2) 미국 대학입학 및 석사학위 취득
3) 미국 대학입학 시험
4) 미국 대학입학 시험 성적 향상
5) 미국대학 주주
6) TOEFL A 2수험생 대상의 개인회
학부유망대학원 1명수준

주요원비 해외유학 가이던스
시니어 대학유학 상담-1
(연간) 548-3881-4
(연간) 548-3881-4
팩스: 548-3883

주요원비 주석식학 불문영어원서
시니어 대학유학 상담-1
(연간) 548-3881-4
(연간) 548-3881-4
팩스: 548-3883

후원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군참모

- 정병모 집**
총장 위촉처

 - 사무자동화병
Office Automation
 - 일반 행정병 Chart
 - 매월 1회 단독인영
 - 상급부대 행정병
으로 복무

